



국적선 외국항에서 보안점검지적 '제로'

ISPS Code 시행대비 사전 준비 철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1일 국제선박및항만 시설보안규칙(ISPS Code) 시행 이후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외국항만에서 국적선 245척에 대해 보안점검이 실시됐으나 1건의 결함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국적외항선에 대한 ISPS Code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해양부는 평가했다.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상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항해 여객선 및 500톤이상 화물선을 대상으로 국제선박 및 항만의 보안체계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한 국제협약으로써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SPS Code의 국제 발효를 앞두고 해양부는 해양부 안전정책담당관을 팀장으로 미주항로 운항선사, 한국선주협회 및 한국선급 등 국내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문제해결팀(Trouble-shooting Team)'을 구성해 외국항만에서 국적선의 ISPS 관

련 보안지적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 왔다.

한편, 올해 국내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 2271척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결함지적률이 20.7%를 기록했다.

하지만 출항정지 조치를 받은 중대결함 선박은 지난해 7월 7척에서 8·9·10월엔 각 1척, 11·12월엔 1척도 없는 등 시행초기 보다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ISPS Code의 시행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보안지적을 1건도 받지않은 것은 정부와 해운업·단체가 적극 협력해 사전준비와 선박보안을 철저히 시행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적선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해운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적선사 상해-닝보간 공컨테이너 운송

연간 1만2,000TEU 운송, 약 10억원 절감

한국선사에 대한 중국 상해-닝보(寧波)간 연안 운송 절차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돼 우리선사의 중국연안 빈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해졌다.

이번 운송 허용으로 한국선사는 연간 1만 2000TEU 이상의 빈 컨테이너를 수송하게 돼 약 10억원 이상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빈 컨테이너 재배치 및 중국선사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는 물론 빈 컨테이너 재고관리를 통해 경영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중국 연안 빈 컨테이너 운송은 지난해 11월 11일 전남 광양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중 해운회담 합의사항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